



은행 (Positive)

12월 연체율: 2024년은 연체율 상승이 둔화된 해

▶ Analyst 김도하 doha.kim@hanwha.com 3772-7479 / RA 권지우 Jiwoo.kwon@hanwha.com 3772-7689

국내은행의 2024년 12월 말 연체율은 0.44%(+6bp YoY)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. 4Q22 상승 전환된 연체율은 2023년 중 그 속도를 높여왔으나 2024년 들어서는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. 연체율 상승 추세는 1H25 까지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합니다. 다만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갱신에 따른 가계 연체율 추이는 변수입니다.

국내은행 12월 말 연체율 0.44%(+6bp YoY)로 상승

- 국내은행의 2024년 12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 이상 연체 기준)은 0.44%(+6bp YoY)로 상승하며 마감 (그림 1~6)
-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.64%(+16bp YoY), 자영업자 연체율은 0.60%(+12bp YoY)로 마감. 2024년 중 중소기업 연체율은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이어옴.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.03%(-9bp YoY)로 역대 최저치를 지속
- 가계 연체율은 0.38%로 3bp YoY 상승. 신용 등 일반대출은 0.74%(+8bp YoY), 주택대출 연체율은 0.26%(+3bp YoY)로 상승폭이 조금이나마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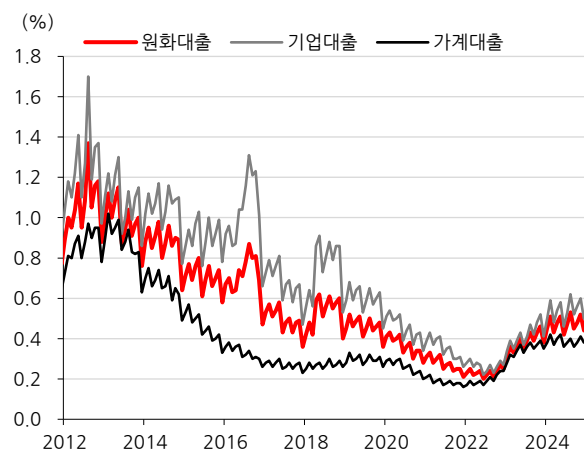
연말 치고는 크게 늘지 않은 상·매각

-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2월 말 10.3조원(+23% YoY)으로 증가 (그림7)
- 기업 (추정): 12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+29% YoY로 추산. 주로 법인 중소기업의 연체 규모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. 연말의 계절적인 상·매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체잔액 감소 효과는 전년보다 작았으며, 이에 잔액 증가율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(그림10)
- 가계 (추정): 12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+13% YoY로 추산. 한 자릿수까지 둔화되었던 주담대 연체 증가율이 20%까지 상승. 과거 저리로 취급되었던 5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 변동주기가 도래한 영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. 추세적인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,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잔액 역시 하반기 내 가장 높은 증가율(+9% YoY)을 기록함 (그림10)
- 12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.5조원으로 감소 (그림8). 월 중 정리(상·매각)된 연체채권은 4.3조원으로, 지난 3월, 6월, 9월의 평균 수준에 그침

2024년은 연체율 상승이 둔화된 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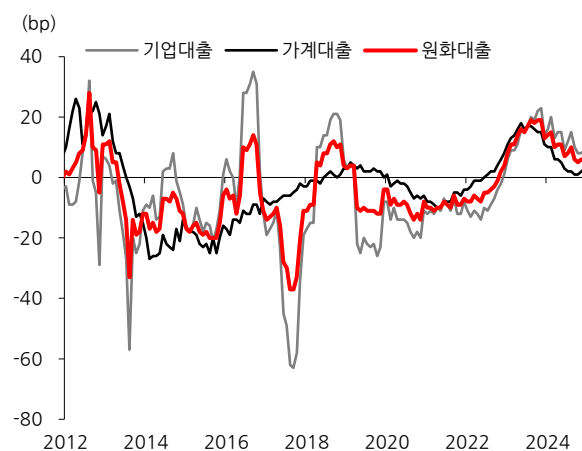
- 통상 12월(연말)에는 상·매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지만, 2024년 12월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분기 및 반기 말과 다르지 않은 수준에 그침. 이에 계절적 요인에 비해서는 연체율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
- 계절성(분기 말 상·매각)을 감안한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,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. 2022년 4분기부터 상승 전환한 연체율은 2023년 중 그 속도를 높여왔으나 2024년 들어서는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짐
- 시장금리의 하락은 신규 취급된 대출과 갱신되는 대출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은행업종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. 따라서 연체율 상승 추세는 2025년 상반기까지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. 다만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갱신에 따른 가계 연체율 추이는 변수가 될 전망

[그림1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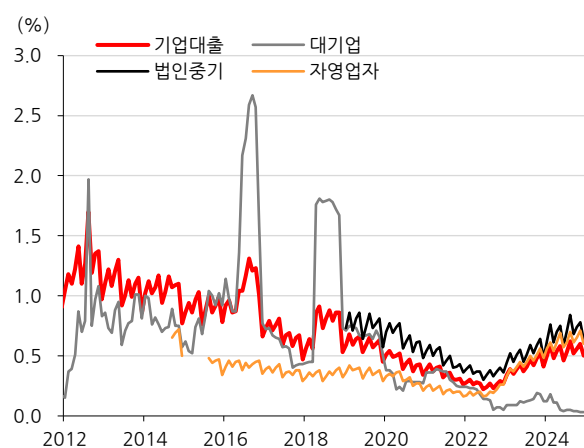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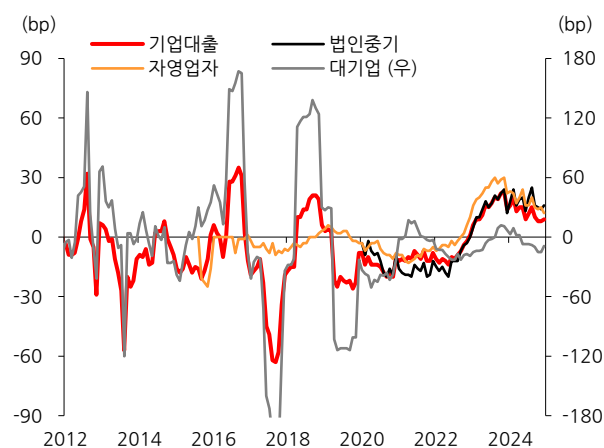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3]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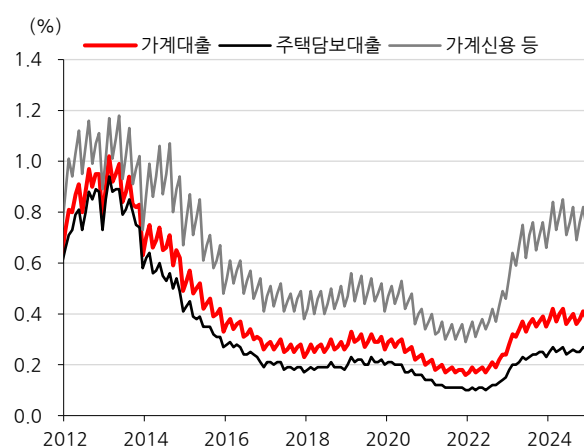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4]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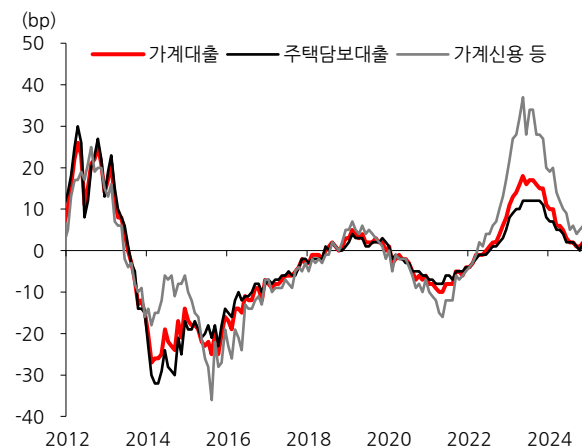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5]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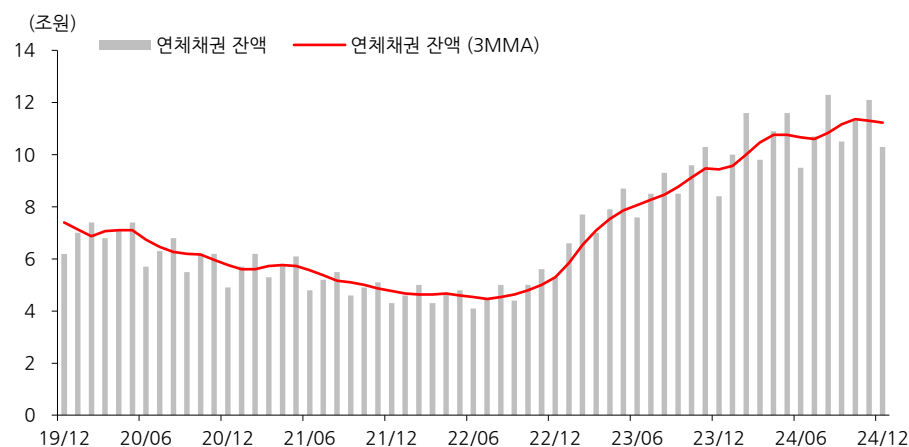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6]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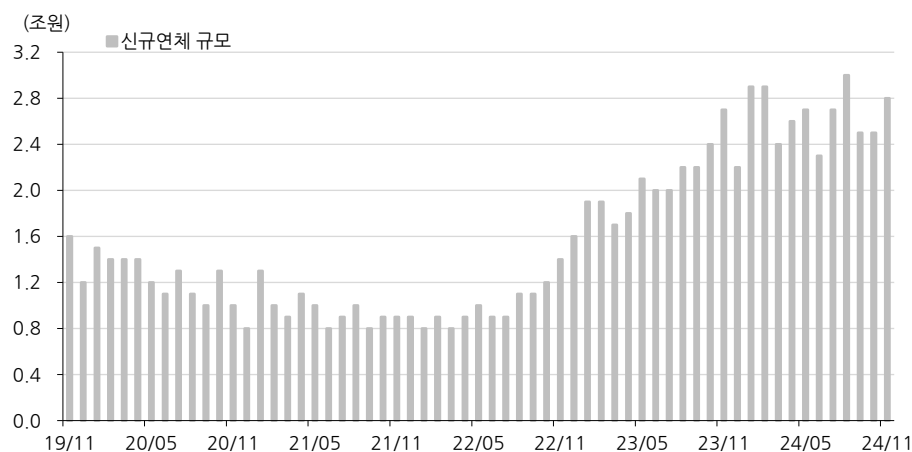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7]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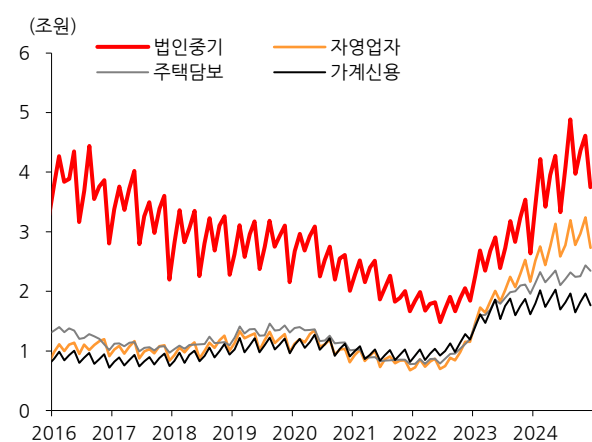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8]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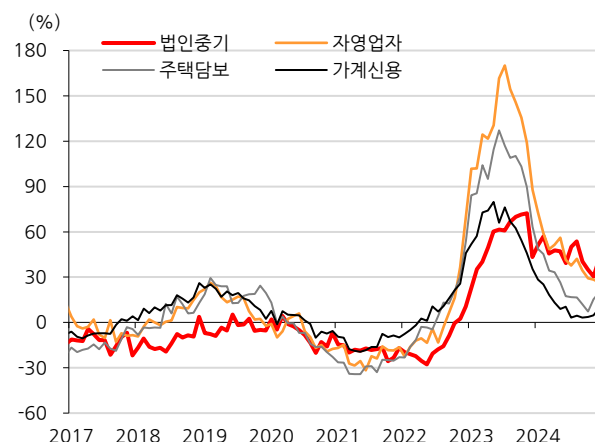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9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0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Compliance Notice]

(공표일: 2025 년 2 월 17 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김도하, 권지우)

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종목 투자등급]

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+15%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(매수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또한 절대수익률 -15~+15%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(보유) 의견을, -15%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(매도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,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.

[산업 투자의견]

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(긍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(중립적) 의견을,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(부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.

[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]

(기준일: 2024 년 12 월 31 일)

투자등급	매수	중립	매도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중	92.0%	8.0%	0.0%	100.0%